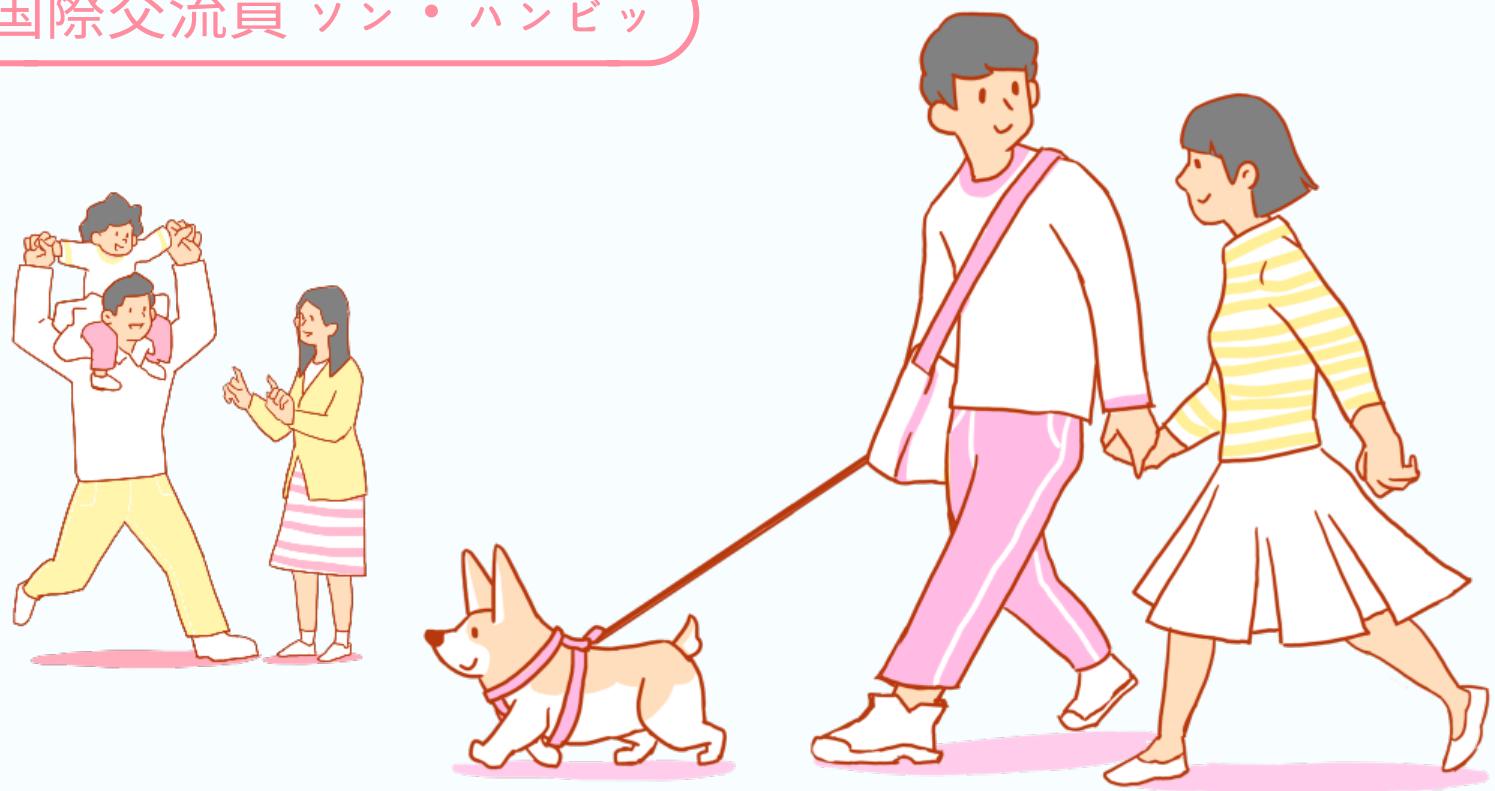


韓国の人々はゴールデンウィークを どう過ごすんだろう？

国際交流員 ソン・ハンビッ



はじめまして！私は4月から山口県の
国際交流員になりましたソン・ハンビッです。
今後ともよろしくお願ひいたします！！
今回の国際交流員レポートのテーマはゴールデンウィーク!!
最長10連休！わくわくがとまらない！
旅行日和の五月、韓国の人々はどう過ごすんだろう？
ゴールデンウィークに韓国をかしこく旅行するための情報と、
韓国の5月の伝統文化をご紹介いたします！

実は韓国にはゴールデンウィークがない！

だからこそ、もっとお得！？

(2022年度)

5月中の韓国の祝日は2日だけ！ (子供の日、釈迦誕生日)

だからこそ、日本のゴールデンウィークの時にも、韓国の観光地の宿泊費等は普段とほぼ変わりません。事前に飛行機とホテルの予約を済ますと、よりお得に韓国旅行を楽しむ事ができるでしょう。

連休じゃなくてもイベントはたくさん！ 韓国の春を楽しもう！

韓国の5月には、子どもの日、親の日、釈迦誕生日、海の日など、記念日がたくさんあります。公休日に指定されているのは子どもの日と釈迦誕生日だけです。せっかくの旅行なのに公休日に引っかかるって、台無しにする事もなし！また、記念日をお祝いする祭り、イベント等がたくさんありますので、韓国旅行に行く時は旅行先のイベント情報を把握しましょう！

☆ハンちゃんのオススメ☆

釜山で旅行するなら…

- ◎釜山子どもの日の大祭りに参加しよう！
プサン
ハプチョン カヤサン
- ◎陜川の伽耶山国立公園と海印寺で自然と佛教文化を楽しもう！（ユネスコ文化遺産）
ヘインサ
- ◎海の日、親の日の特別セールでお得に買い物しよう！



ハンちゃんの韓国歴史伝統教室

韓国の「花見」は5月がハイライト!

現代では韓国でも「花見の定番」と言えば桜ですが、昔から朝鮮半島の春を代表する花は桃と杏でした。

記録によると、李氏朝鮮時代では、毎年春になると、桃の花を見に来る人が山の中いっぱいだったと云われちよる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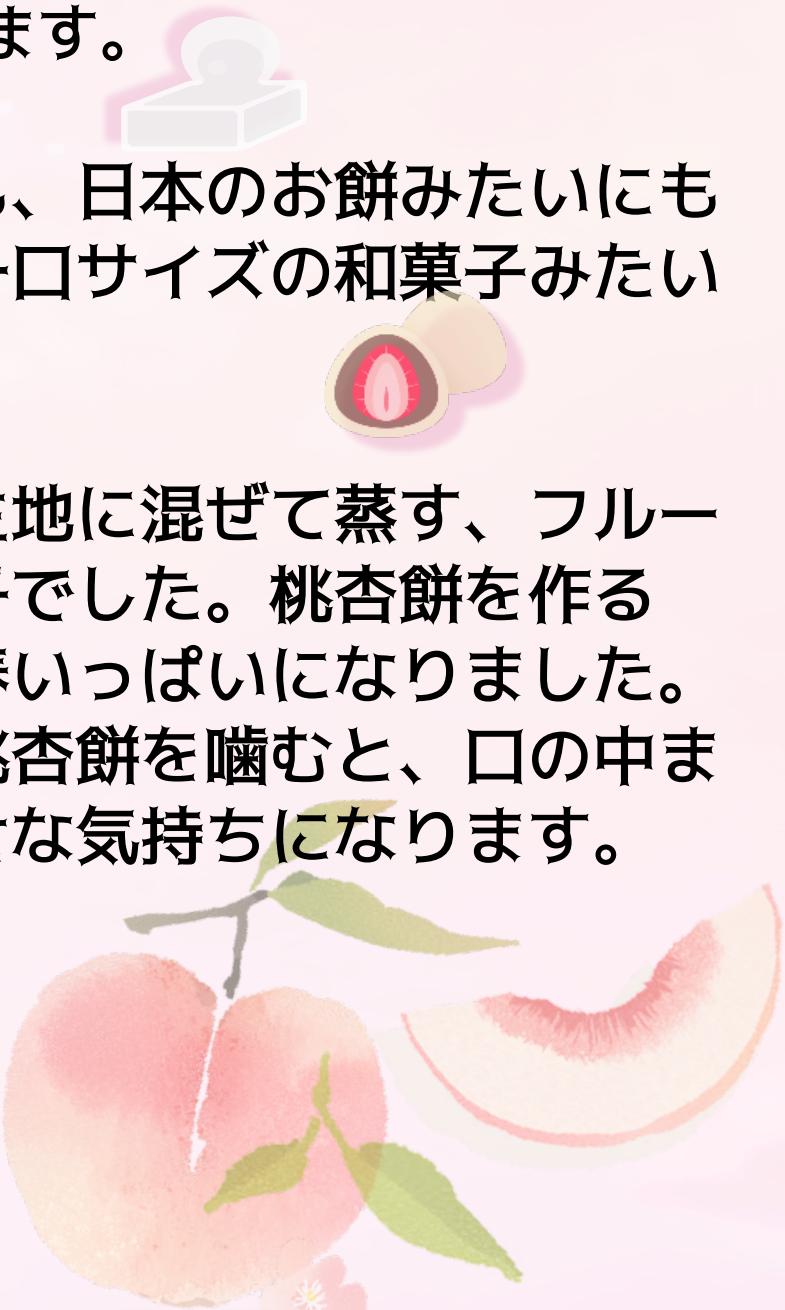
「桃杏餅」(トヘンビヨン)は、美しい春を満喫したい先人たちの心から生まれたスイーツです。朝鮮半島の人々は端午(たんご)になると、親しい人達に桃杏餅と団扇を送ったと云われております。

桃杏餅は「餅」と言っても、日本のお餅みたいにもちもちした感じじゃなく、一口サイズの和菓子みたいな感じです。

桃と杏のジャムをお餅の生地に混せて蒸す、フルーツの蒸しパンみたいなお菓子でした。桃杏餅を作ると、家の中が果実の香りで春いっぱいになりました。果肉がいっぱい入っちょる桃杏餅を噛むと、口の中まで春でいっぱいになり、幸せな気持ちになりま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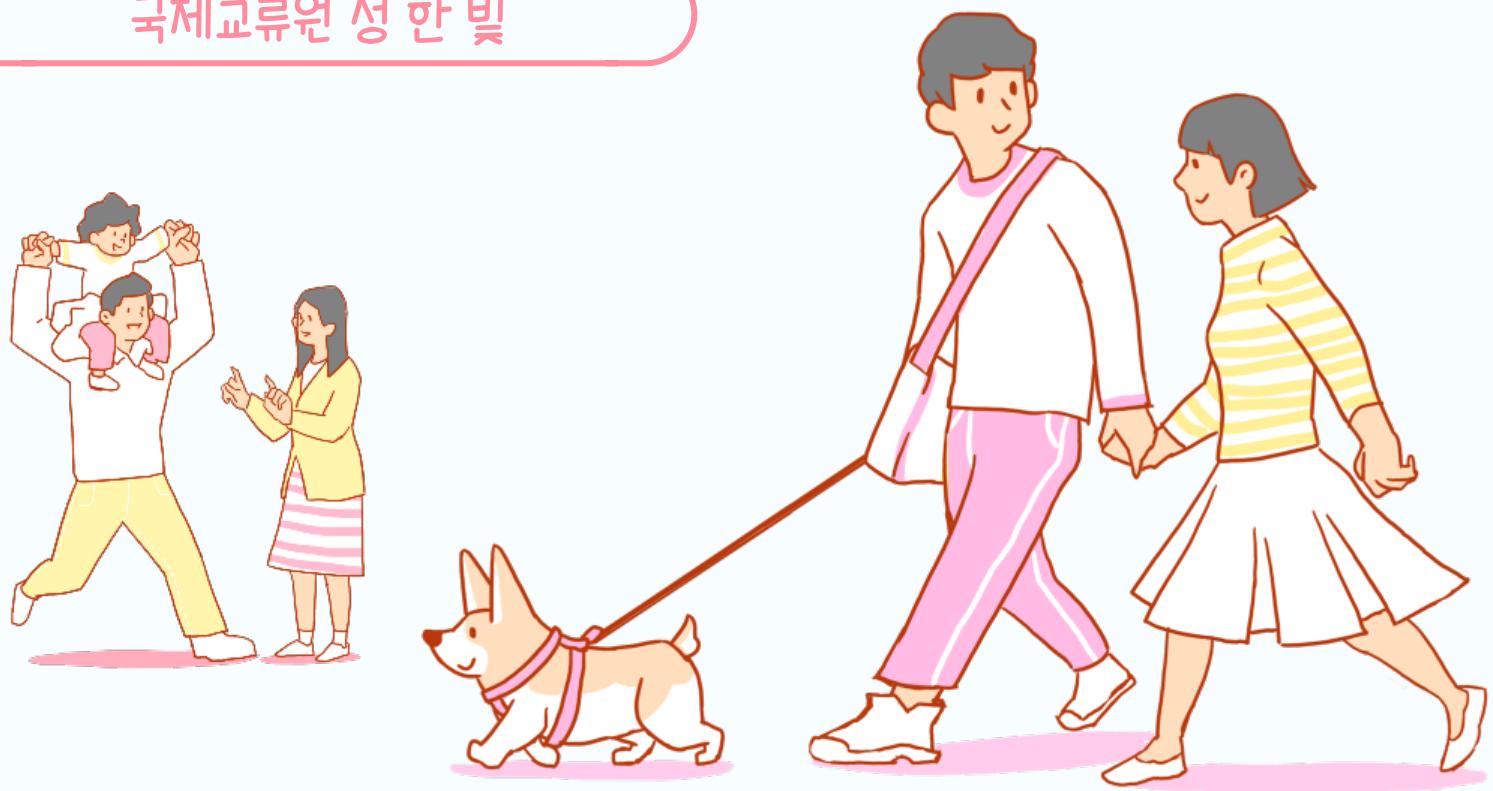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진달래
桃の花、杏の花、赤ちゃんのツツジ

韓国童謡
「故郷の春」から



한국 사람들은 골든위크를 어떻게 보낼까?

국제교류원 성한빛



안녕하세요! 저는 4월부터 야마구치현청의 국제교류원으로서
부임하게 된 성한빛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국제교류원 레포트의 주제는 골든위크!!

최장 10연휴! 너무너무 기대되는데요!

여행가기 딱 좋은 5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보낼까요?

골든위크에 한국을 스마트하게 여행 하기 위한 정보와 한국의 5월 전통문화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골든위크는 사실 한국에는 없습니다 !

그렇기에, 더욱 저렴하게 ! ?

(2022년도)

5월중의 한국의 휴일은 이틀 뿐!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그렇기에 일본의 골든위크 기간에도 한국 관광지의 숙박비, 입장료 등은 평소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사전에 비행기와 호텔 예약을 해둔다면 더욱 저렴하게 한국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연휴가 아니라도 이벤트는 한가득!

한국의 봄을 즐기자!

한국의 5월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석가탄신일, 바다의 날 등등 기념일이 매우 많습니다. 이 중에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 뿐입니다. 모처럼 여행왔는데, 공휴일에 걸려서 아무것도 못하게 될 일도 없을겁니다! 또한, 기념일에 따른 축제, 이벤트가 한가득 있으니 한국여행을 계획 할 때는 현지의 이벤트 정보를 파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짱의 여행계획 추천☆

부산을 여행한다면...

◎부산 어린이날 대축제에 참가하자!

◎합천 가야산 국립공원과 해인사에서 자연과 불교문화를 즐기자! (유네스코문화유산)

◎바다의 날, 어버이날의 특가 세일 이벤트에서 쇼핑하자!



한강의 한국 역사전통교실 한국의 꽃놀이는 5월이 제격! *

현재는 한국에서도 "꽃놀이"하면 벚꽃을 가장 먼저 떠올리지만,实은 옛부터 한반도의 봄을 대표하는 꽃은 복숭아꽃과 살구꽃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조선시대에는 매년 봄에 복숭아꽃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산에 가득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도행병」은, 아름다운 봄을 만끽하고 싶은 선조들의 마음에서 태어난 디저트입니다. 한반도의 선인들은 매년 단오에 친밀한 사람들에게 도행병과 부채를 보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은 도행병은 떡 병(餅)자를 쓰지만, 일본의 떡처럼 쫄깃쫄깃한 느낌이 아닌, 한입 사이즈의 화과자와 비슷한 느낌의 디저트입니다.

복숭아와 살구의 페이스트를 떡 반죽에 섞어 찌는, 과일빵 같은 느낌의 디저트입니다. 도행병을 만들면, 집안까지 과일의 향기로 봄으로 가득차게 되었습니다. 과육이 잔뜩 들은 도행병을 한입 물면, 입속까지 봄으로 가득차게 되어, 행복한 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진달래
桃の花、杏の花、赤ちゃんのツツジ

한국동요
「고향의 봄」에서

